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이다은

파견기간: 2023.04~2023.08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TUM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1. 교환 파견 동기

넓은 시야를 기르기 위해 해외에서 혼자 생활하며 공부하는 경험을 하고 싶었고 그렇기에 교환학생은 대학생생활 중 꼭 하고자 했던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학부생으로서의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다가왔기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2.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저는 새내기 시절 유럽여행을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교환학생의 목적 중에는 유럽 여행도 포함되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유럽에 있는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중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공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공과대학에는 전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내는 연구실이 많습니다) 저는 독일의 공대 중 뮌헨 공대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뮌헨 자체가 다른 독일 도시들에 비해 안전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뮌헨의 경우 독일의 도시 중 가장 부유한 도시이기에 범죄율도 낮고 마약중독자가 별로 없어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2.2. 파견대학/지역 특징

뮌헨의 경우 바이에른 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과 조화가 잘 되어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뮌헨 사람들은 주로 날씨 좋은 날 영국 정원(Englischer Garten)이나 이자(Isar) 강에 나가 여유를 즐기는 편입니다. 뮌헨에 가게 된다면 꼭 강에서 수영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뮌헨은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봄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4월까지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며 불규칙하지만 5월이 시작하면서부터는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건조한 편이지만 미국 서부처럼 비가 안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끔씩 이상기후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소나기, 우박)

뮌헨은 한국인 수가 적은 편인 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뮌헨 공대로 교환학생을 가는 인원은 꽤 많은 편이기에 교환학생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많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한식당은 4개 정도 있으며 대체로 20유로 이상입니다. Zum Koreaner 라는 Universität역 근처 식당은 대학가 근처의 한식이기에 10유로 정도의 매우 싼 가격으로 한식을 판매하지만 딱 그 정도의 퀄리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출국 전 준비사항

3.1. 슈페어konto

독일의 경우 비자 발급 과정 중 경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슈페어konto라는 계좌를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슈페어konto가 아닌 지로konto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한 도시들도 있다고 합니다.(뮌헨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페어konto는 block account로 유학 기간 중 사용할 돈을 이 계좌에 묶어두고 내 개인 계좌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konto는 일반 계좌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일반 계좌에 최소 금액 이상을 입금해두면 경제력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Expatrio라는 대행사를 이용하여 슈페어konto 개설과 공보험 가입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공보험의 경우 TK 보험이 가장 일반적인데 뮌헨공대에 재학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3.2. 기숙사

기숙사는 admission 작성 중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 이메일을 통해 기숙사 배정을 받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뮌헨 전역에 퍼져 있으며 뮌헨에 있는 모든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뮌헨 지역 학생 기숙사 담당 부서에서 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저의 경우 U3의 Olympiazentrum역에 위치한 Olydorfer라는 기숙사였는데 올리돌프의 경우 뮌헨 지역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기숙사 중 하나입니다. 개인 화장실과 개인 부엌이 있는 기숙사입니다. 다만 기숙사 내에서 Vodafone 데이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6개월치 월세를 두 번에 나눠서 송금합니다.

4. 독일 입국 직후

4.1. 안멜등

기숙사에 입소한 이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안멜등입니다. 안멜등은 그냥 주민 등록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미리 테어민을 잡고 해당 날짜에 방문하여 간단한 인터뷰 이후 안멜등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없다면 안멜등 서류가 더 중요해지기에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4.2. 비자 신청

출국 전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독일에서 비자를 발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독일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과정은 한국에서 발급 받는 것보다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에 꼭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독일에 입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쉥겐 조약에 따라 180일이 지나면 유럽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5. 학업

5.1. 수강신청과 시험신청

뮌헨 공대의 경우 수강 신청 기간이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이기에 계속 수강 과목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 시간대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험신청 과정도 존재하기 때문인데 독일에서는 시험을 신청한 과목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그 과목만 성적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간을 잊지 말고 시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수강과목

독일어를 할 줄 알지 않는 이상 영어 성적만으로는 뮌헨 공대의 영어 수업만 수강 가능합니다

다. 전공과목의 경우 석사과목들만 영어로 열리기에 저는 Power electronics and electrical vehicle이라는 과목 하나를 수강하였고 경영학과는 학부 과목들도 영어로 열리기에 Marketing and Innovation Management를 수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A1.1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석사 과목의 경우 당연히 학사 과목들에 비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수강하는 것이 (여행과 병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Marketing and Innovation Management 과목을 정말 추천합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 과목을 포함해 다양한 경영학 과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블로그가 있으니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